



'전국 최강' 을 자랑하는 광주여대 양궁부가 지난 21일 광주여대내 실외 양궁 연습장에서 내년 시즌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정(3년·21·주장), 기보배(1년·19), 박지연(2년·20), 조혜영(1년·19), 신은정(1년·19), 심현자(2년·20), 김성은 코치.

'美女공사 6인방' 神弓계보 잇는다

스포츠 포커스

전국대회 그랜드슬램 광주여대 양궁부

'신흥명문' 광주여대 양궁부를 방문한 21일 밤, 광주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맴돌았다. 연습이 한창인 실외 양궁 연습장으로 들어서니 바람까지 썰썰 불어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다. 광주여대 양궁부의 훈련은 4개월 내내 계속되는데, 한 겨울에도 활 시위를 놓을 수 없다고 한다. 하루만 쉬어도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 유난히 폭설이 자주 내렸던 지난해 겨울에도 양궁 연습장 한 칸을 비닐 하우스로 만들어 구멍을 뚫어 놓고 그 틈으로 활을 쏘아왔다. 이날도 광주여대 '미녀신공' 6인방은 초 겨울 추위도 잊은 채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야외 연습장 한 칸 난로 주위에 모여 여느 여대생들처럼 수다를 즐기던 이들은 훈련이 시작되자, 어느새 굳은 표정으로 사선(死線)위로 올라섰다.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보니 좀전과 사뭇 다른 표정이다. 옛날 얼굴에 앙다문 입술위로 활시위를 얹어놓는 폼이 전설속 여공사같은 신비함마저 느껴진다.

선수당 하루 800발 활 시위 맹훈련

하루에 한 선수당 800발 이상의 활 시위를 당긴다고 한다. 타 팀 선수들이 소화하는 400발 보다 두배나 많은 연습량이다. 지난 2000년 창단한 광주여대 양궁부는 그동안 국내·외 대회에서 금 24개, 은 25개, 동 27개를 따내며 창단 7년만에 한국체대와 경희대를 제치고 한국여대부 양궁의 최고봉에 올라섰다. 올해에는 대통령기 종합 우승으로 창단 이후 국내 5개 전국대회(전국체전, 전국종별 선수권, 회장기 전국대학 대회, 대통령기, 대학 양궁오

픈)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grand slam)'의 역사도 이뤄냈다.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팀원들이 태극마크 달고,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최소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여대 양궁부는 창단 원년부터 전국체전 등 굵직한 전국대회를 휩쓸며 국내 양궁계에 파란을 일으킨 팀.

"내년엔 꼭 태극마크 달거예요"

한국 40여년 양궁 역사상 창단 첫 해에 전국대회를 석권한 팀은 광주여대가 유일하다. 그렇다고 당시 선수들이 스타급 대어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었다. 창단 멤버는 이준영과 신경진, 최미연 등 3명. 이들의 이전 성적표는 '우승'은 커녕 입상이란 단어조차 한 줄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그래서 당시 이들을 바라보는 양궁인들의 표정도 싸늘했다. 현재 실업팀인 하이텍중에서 활약중인 신경진은 "첫 대회에 나갔는데 '너희들이 뭘 해'라는 비아냥 거리는 시선들을 받고 당황했다"면서 "여기에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밤낮없이 훈련에만 매달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들 무명 공사 3인방은 광주여대 진학 후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만 제외하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추석 등 '명절'이란 단어도 이들에게는 사치였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창단 3년째인 2003년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최미연이 세계 타이 기록을 세우며 개인 종합 1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해내기도 했다. 창단때 부터 광주여대 양궁부를 맡고 있는 김성은(33)코치는 "그동안 쌓였던 설움이 많았던지, 선수들 스스로가 지독할 정도로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 냈다"고 말했다. 이때 만들어진 훈련 시간표는 7년이 지난 지금도 후배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광주여대 양궁부가 내뿜는 힘의 원천인 셈이다. 광주여대의 무명 신화가 알려지면서 전국에

서 신공을 꿈꾸는 후배들이 교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주니어 국가대표 출신인 기보배와 조혜영을 비롯해 신은정 등 유망주 3명이 팀에 가세했다. 특히 기보배는 입학과 동시에 지난 6월 대학 양궁대회에서 개인종합 2위의 성적을 내놓더니, 같은 달 대통령기 양궁대회에서는 개인 70m와 50m에서 2위에 오르며 팀의 단체 종합 우승을 이끌었다. 자신의 이름에 딱 맞는 팀의 보배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의 결실은 전연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최상의 지원이 최강팀 만들어

창단 이후 양궁부 졸업생 100%가 실업팀 등에 취업, '광주여대 양궁부=취업 직행'이라는 신조어도 탄생시켰다. 광주여대 양궁부의 빠른 성장은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밑거름이 됐다. 광주여대 사무처장 시절 양궁부 창단을 이끈 오 총장은 이후에도 불심양면으로 양궁부를 도

왔다. 지난해 9월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더욱 열성적이다. 교내에 4억원을 들여 전국 대학 중 최고 시설인 지상 1층 85평 규모의 실내 양궁 훈련장을 신축중이다. 교직원들의 양궁부 사랑도 남다르다. 주장 김수정(3년)은 "훈련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직원분들이 간식도 사주고, 가끔은 저녁 회식자리도 마련해 준다"면서 "다들 식사가 좋고 주량(1인당 소주 2병)도 많아(웃음) 그 값이 만만찮을 텐데..."라며 고마움을 표현했

다. '최고의 지원만이 최고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의 오 총장은 "약조에서 성적을 내는 시대는 지났다. 최고가 되기 위해선 최상의 훈련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훌륭한 시설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광주여대 양궁부의 최강 전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여대 주요 입상■

- ▲2004년 일본 나고야 실내양궁대회 개인종합 우승, 전국종별선수권 개인 50m 우승
- ▲2006년 제24회 대통령기 양궁대회 단체종합 우승, 제23회 전국대학실업대회 단체종합 및 개인 30m 우승,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인 50m 우승

광주여대 양궁 유망주 기보배양이 지난 21일 매서운 눈빛으로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p>광주여대 양궁부 전국대회 그랜드슬램 달성 양궁부 6인방, 최강팀 만들어</p>	<p>전국대회 그랜드슬램 광주여대 양궁부, 최강팀 만들어</p>	<p>최상의 지원이 최강팀 만들어 광주여대 양궁부, 최강팀 만들어</p>	<p>선수당 하루 800발 활 시위 맹훈련 광주여대 양궁부, 최강팀 만들어</p>	<p>내년엔 꼭 태극마크 달거예요 광주여대 양궁부, 최강팀 만들어</p>	<p>광주여대 주요 입상 광주여대 양궁부, 최강팀 만들어</p>
---	--	---	--	---	--